내 목 내가 찍는 단두대 자부심

(역대상 10:1~14)

1.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3.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4.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5.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6.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목 내가 찍는 단두대 자부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목 내가 찍는 단두대 자부심'

"내 발등을 내가 찍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보면 자칫 도끼날이 내 발등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행한 일이 결국 내 발등을 찍는 것처럼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패러디하여 '내 목 내가 찍을 수 있다'라는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도 있고 사람마다 가지가지 신앙적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적 자부심이 내 목 내가 찍는 단두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 할 때 그렇습니다.

누가 신앙인이고 선민이냐의 뚜렷한 의식이 없이 신앙인의 자부심만을 가졌을 때입니다. 즉 내용은 신앙인이 아닌데도 신앙인으로서의 착각에 기인한 자부심만을 가질 때에 그 자부심은 내 목을 찍는 단두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정체성 있는 상태에서는 자부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체성 없이 자부심을 가질 때 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없는 빈껍데기의 자부심이 단두대가 되어서 내 목을 향하는데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질적인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앞의 족보이야기도 역사이지만 족보의 형식을 빌어서 복음을 이야기한 것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게 탁월한 영적 통찰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는 참 특이한 형태를 지닌 복음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윗 앞서 통일왕국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 31장까지 나옵니다. 그 속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도 섞여있지만 에스라는 단 한 장으로 줄여버립니다. 마치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이야기를 축약시키는데 그것도 사울 왕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해 죽게 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할례 받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자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자기 칼을 땅에 거꾸로 세운 채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즉 사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힘은 할례 받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에스라가 우리 앞에 던지는 화두는 할례입니다.
에스라의 역사관은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신학자는 “교회사를 성경에 대한 해석의 역사”라고 했는데, 에스라의 눈에 비친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될 선민의 역사는 곧 “성전에 대한 선민의 태도의 역사”라고 본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역사관에 입각해서 서술된 역대기를 읽을 때에 꼭 알아야 하는 점이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할례의 의미가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계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다윗의 언약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존재 의미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선민의 역사를 관통하는 것은 성전과 성전의 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전이나 성막이 없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의 언약을 통해 이미 성전의 의미가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의 의미가 선민의 의식 속에 살아 있을 때에 성전의 존재 의미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성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선민의 역사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할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합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여 집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알 수 없을 때에 사무엘이 죽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에 관해서 살펴보면 삼상28:6~7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고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비참한 자결로 사울의 인생이 끝이 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자신을 욕되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할례 받은 선민의 자부심으로 자결을 했는데 이 자부심이 자기 목을 자기가 찍는 단두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도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의 차별화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민 됨의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이방민족과 선민의 정체성에서 다른 것인데 그 다른 것의 표식으로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자체가 차별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할례는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데 그 차별화된 내용의 표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할례가 타민족을 대할 때의 우월감과 자존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선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표식이지 우월감이나 자부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부심은 정체성에 뒤따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통한 선민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할례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 언약이 나오는 창17:1절에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격리되어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가 사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승천하신 것도 그 당시에 이 땅과는 하늘을 다른 차원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지, 구름 위의 태양이나 달로 가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만 내 앞에 와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장육부보다도 나의 마음에 가깝게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선민이 이방민족과 다른 점입니다.

선민과 이방사람에게 똑같이 돈 문제가 생길 때에 이방인들은 돈 문제를 마음으로 끌어안습니다. 돈 문제와 마음이 결합된 상태에서 자기가 믿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마음이 돈 문제와 합쳐진 상태에서 자기들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가 내 마음을 압박함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마음을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이고 이러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돈 문제 앞에서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묶이면 이제 그 돈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그 뜻대로 이끌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꼭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소원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돈이 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합3:17~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이 이방인과 다른 점입니다.

선민이 돈 가족 직장 건강 사업 등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례의 표식을 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묶인 상태에서 문제를 대해야지 문제와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았을 때에도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께 물었으나 대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에스라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충되는 두 말은 앞서 말한 묶임을 통해서 모순 없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돈과 먼저 묶이면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과의 승패에 마음이 묶인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블레셋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과 묶였을 때에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상대할 때에 사울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할례의 의미를 잊고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미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블레셋에 먼저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도 블레셋이 더 우선적이고 막강하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마음이 곧 믿음의 반영입니다.

내 마음에 자녀 문제가 부딪혀오고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더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할례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문제들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녀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묶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이러한 할례의 정신이 없이 할례 받은 자로서의 자부심만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름진 소나 양을 따로 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나 양과 값진 물건들이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인 가치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들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할례 언약을 위반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2: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세상을 베어버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할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타민족에 대한 우월성이나 자부심으로 변질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 의미를 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할례의 본래 정신은 그리스도의 할례와 똑같은 의미로 마음에서 세상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과 내 마음이 먼저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상황에 먼

저 붙으려는 죄적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의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전능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실감한다면 내 눈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독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의 마음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못 주실 것은 무엇이고 안 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날마다 돈 문제 자녀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걱정하고, 승진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는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보다도 티끌에 불과한 문제에 마음이 붙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도 티끌 같은 세상 문제에 마음이 묶이려는 나의 성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장치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할례 언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묶이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마다 번제단에서 죽어야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상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면서 나대신 어린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할례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어린양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존재 의미이고 성전의 의미는 할례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할례 언약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상번제는 아침저녁으로 드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루에도 백번 천 번이라도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가 하나님보다 먼저 연합하려는 마음을 십자가로 잘라내야 합니다.
사업 문제로 마음이 결합이 되었을 때 기도원에 가서 사십일 금식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은 핸드폰의 전원을 끈 채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십일 금식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업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십일 기도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빠져버린 자부심이 내 목에 내 스스로가 단두대를 갖다 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할례 언약의 진정한 의미위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십자가 복음 사건의 생활화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실제로 생활화를 하면서 준비하신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사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할례 언약을 맺으셨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의 언약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 생활화의 분명한 명분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